

# 한국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

-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

사중회경 \*

## 〈 목 차 〉

1. 들어가며
2. 한국어 교육의 현황
3. 한국어 교육의 과제
4. 나오며

## 1. 들어가며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재외동포 2-3세의 증가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늘어난 한국어 교육 규모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주요 대학에 개설된 한국어학과 또는 한국어 강좌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학습자 수도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어 각 대학들이 앞 다투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 또는 과정이 설치하여 한국어 교사를 확충하고 한국어 교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재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의 주요 대학 중 상당수가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 학원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어 교육의 확대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은 아

---

\* 성균관대 강사

니다. 1959년에 연세대학교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미국에서 한국 학교, 일부 대학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것을 기점으로 할 때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대략 40년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규모가 현재에 이르러 커진 것은 불과 10년 안팎의 일이다.<sup>1)</sup>

이렇듯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며, 또 전문 인력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각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 주요 대학들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학위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의 한 분야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아직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서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 매김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남아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응용 국어학의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의 범위, 대상, 연구 방법 면에서 볼 때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국어학과 국어교육학과 함께 대등한 하나의 학문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국어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의 차이점은 전자가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 “습득”하는 모어인 국어에 대한 관찰과 이해, 분석, 원리의 탐구를 바탕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능과 문법에 대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연구라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언어로서,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배우는 한국어의 학습 목적과 내용, 학습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그 목적과 접근 방법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최근 동향과 함께 제반 문제들을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은 1980년 전후부터이다. 그 사이에 엄청난 수로 늘어난 해외 이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해졌고,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먼저 점검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해 보려고 한다.

## 2. 한국어 교육의 현황

### 1) 한국어 교육 대상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이 처음 실시될 때 수요자 집단의 변인은 단순했다. 그러나 현재 과거 수요자 집단을 대체하여 새로운 집단이 자리를 잡는 형식이 아닌, 과거 수요자 집단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단이 계속 추가되어 오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한국어 교육 대상의 변인이 매우 다양해졌다.

#### (1) 직업과 관련한 연수생

한국어 교육 초기에 주를 이루었던 집단으로 선교사, 외교관, 언론인, 직업 군인, 외국 회사 주재원, 외국인 한국어 교사가 대표적이다. 다만 종교 계통의 수요자 집단은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만큼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들 집단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한국어 학습 경험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약 1년 정도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 (2) 외국 내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비록 한국어학과,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등<sup>2)</sup> 이름은 달리 하지만 대

---

2)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도 그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어 강

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습자 집단이다. 이들은 재학하는 동안 본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와서 일정 기간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이들이 한국에 오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①방학을 이용하여 10주 정도 한국에서 배우는 경우, ②1년 휴학하고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 ③한국국제교류재단 등 한국 정부 기관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6개월-1년 정도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이다. 최근 외국에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 외국의 대학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들 집단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3)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최근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중고등학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0년 현재 서구 국가의 통계만을 볼 때 110개국에 약 4천 명 내외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많으나 현지 국가의 중고등학교 정규교사 자격증을 갖춘 한국인이 없는 곳도 많아 외국인 교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많다. 특히 외국인 교사가 주를 이루는 곳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국내 프로그램은 3주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 그 횟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 (4) 재외동포 및 해외 입양아

한국은 중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재외동포의 규모를 가지

---

좌를 개설한 대학이 100여 곳에 이르며 일본에서는 80여 개의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3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외에 호주,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뉴질랜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네덜란드 등 외국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에 해외에 이주한 사람들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 이중 언어 상태를 유지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민 1.5세대 이후의 재외동포는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 분포된 해외 입양아의 수는 약 1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이 현지인으로 동화되어 생활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정체성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 이익의 차원에서 등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재외동포 및 해외 입양의 경우 주로 국제교육진흥원과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에 의해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 (5) 외국인 취업 연수생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집단 중 제일 규모가 큰 집단으로 그 숫자는 합법적 체류만 해도 약 35,000명이며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제도적 차원에서 계획된 것은 총 10시간에 불과하나 이들 중 일부는 국내 대학 부설의 교육기관, 또는 직장 인근에서 자원 봉사자들<sup>3)</sup>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아직은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나 점차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규모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연수 취업 자격시험 제도<sup>4)</sup>의 시행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6) 순수 한국어 연수생

3) 해당지역 YMCA나 원불교 등에서 한국어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한글학회 산하 세계한국말인증시험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KLPT(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가 10월 31일에 첫 정기시험을 치른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집단으로 개인의 목적에 따라 순수하게 한국어만을 배우는 집단이다. 즉 한국어 학습을 통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 또한 몇몇 하위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①본국에서 고등학교, 2년제 대학(전문대학, 단기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집단, ②한국인과의 교제를 위하여 배우는 집단, ③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배우는 집단, ④직장 퇴사 후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하여 배우는 집단, ⑤기타 집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짧게는 중간 알선 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3주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나 대체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3개월-1년 6개월 정도 한국에 머문다.

## 2)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 기관은 1980년대 이전까지 극히 제한적이었다. 국내에서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도원과 연세대 한국어학당,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현재의 국제교육진흥원), 언어교육연구원 등 다섯 곳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 공급 집단이다. 1959년 연세대 한국어학당을 시작으로 하여 1969년 서울대 어학연구소, 1986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문화연수부, 1988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1989년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등이 차례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서강대 한국어 교육연구원을 필두로 하여 한국어 교육 기관은 급속하게 늘어나 현재는 대략 30여개 대학에서 크고 작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각 교육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르며 학기 운영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1년 4학기제로 되어 있으며 입학에서 졸업까지 대체로 1년 6개월~2년 정도가 걸린다. 이들 교육기관은 정원제가 아닌 관계로 학습자 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으나 총 수

자는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로 학기마다 약간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 부서 또는 유관기관이 초청한 외국인/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규모가 점점증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재외국민의 모국 적응 과정으로 출발하여 재외동포 및 해외 입양 한국인의 문화 교육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교육진흥원이 그 대표적 기관이다. 이 외에도 5곳 정도의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sup>5)</sup>이 있다.

〈표1〉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현황<sup>6)</sup>

기관명	개설 년도	사용교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59	한국어 1-6/ 한국어 독본 1-6 (연세대 한국어학당 편)
국제교육진흥원	1962	한국어 1-4 (국제교육진흥원 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69	한국어 1-4 (서울대 어학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한국학센터	1986	한국어 1-6 (고려대 한국어 문화연수부 편)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988	말이 트이는 한국어 1-4 (이화여대 언어교육연수원 편)
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1989	한국어 초, 중, 고급(각 2권)(신문대 편)
서강대학교 한국어센터	1990	서강 한국어(서강대 한국어센터 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1992	한국어 1-2 (한국외대 외국어연수원 편)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1993	자체 교재 (경희대 국제교육원 편)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1997	자체 교재
성균관대학교	1997	자체 교재
숙명여자대학교	1997	자체 교재
건국대학교 사회교육원	1998	연세대학교 교재

- 5) 가나다 한국어학원, 한국어 교육문화원, 서울한국어아카데미, 시사한국어학원, Berlitz Korea 등이 있다.  
6) 이 외에도 최근 한국어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대학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 3) 한국어 교사 양성 및 교과과정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교육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7)</sup>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대학 내 한국어 전공 석사과정 개설, 학부 한국어 전공 개설,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짜여진 교육 과정, 다양한 교재 개발,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 개발 등 많은 부분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어가 대학 입학시험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이 SATⅡ(Scholastic Aptitude Test)의 과목으로 채택되었고 2001년에 일본 대학 입학시험이 센타 시험의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어 교육 수요의 팽창과 함께 교육 기관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교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이 학문 체계, 교원 양성과 인증 등에서 아직 공교육 차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는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 등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강사진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전공자라 할지라도 한국어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활동에 종사한다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이론적, 실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교수를 채용하고자 하고 있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외국어로서의 한국

7)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라고 함은 한국어를 목표어로 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학습자가 한국어 환경에서 살거나,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을 때를 말한다. 이에 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는 학습자의 모국어 환경에서 목표어인 한국어를 교육받을 경우에 해당한다.



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어의 교육과정은 각 단계별로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단계간의 연결 고리 역시 분명치 않다. 이는, 각급 학교 간에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교류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과 각 단계별 교과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언어 기능 및 내용에 관한 기초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재 한국어 교과 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많은 학교들에서 각 학교나 담당 강사가 작위적으로 만든 교과 과정에 의존하여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 그나마 각 단계별 교과 과정이 몇 년 혹은 십여 년 이상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

현재 한국어 교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위 과정(정규 과정)이 있는 대학을 개설 년도 순으로 살펴보면 <표2>와 같이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표2> 한국어 교육 학위 과정 개설 현황

과정	학교 / 학과명	개설 년도	학위
학부	한국외대 사범대학 한국어 교육과	1974	학사
	경희대 동아시아학과군 한국어전공	1999	
	숙명여대 국제한국어 교육전공	2000	
	이화여대 한국어 교육 전공	2002	
대학원	연세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1983	야간 교육학 석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1997	
	경희대 교육대학원 한국어 교육 전공	1998	
	고려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1999	
	한양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1999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2000	
	신문대 교육대학원 한국어 교육 전공	2002	
	상명대 교육대학원 한국어 교육 전공	2003	
	서울대 대학원 한국어 교육 전공	2002	주간 석·박사
	이화여대 대학원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전공(세부전공)	1982	일반대학 원 석사

한국어 교육 전공은 학부 과정과 석사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학부 전공은 1974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 교육과라는 명칭의 학과가 생겼으나 이 학과는 이름과 달리 1984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관련 교과목이 한 강좌 개설되었을 뿐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과로 방향을 잡지는 않았고 국어교육과와 같은 성격의 전공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1999년에 경희대학교 외국어학부 동아시아학군 내에 한국어전공이 개설된 것을 최초로 볼 수 있다. 단지, 이 학과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어과'라고만 하여 한국어 교육이란 전공 특성이 명료하게 학과명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숙명여대의 '국제한국어 교육'전공은 학문 명칭으로나 학과명으로나 국어 교육과 다른 한국어 교육의 교육성과 국제성을 표방하고 전공을 개설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전공으로 이화여대도 2002년도부터 학부 전공을 개설했다. 그 외 서강대 국어국문학과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목을 전공 선택으로 개설하였다.

학부의 한국어 교육이 이와 같이 적은 것은 한국어 교육이 적어도 독립 전공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불과 10여년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어 교사의 자격 인증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부 졸업생에게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수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강사를 채용할 때 기본적인 자격 요건으로 석사 학위 이상 소시자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 전공 학사 자격만으로는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학부의 현황에 비해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공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설치되고 있다. 1986년에 국어교육학 석사, 박사 과정을 설치한 서울대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논문을 쓴 학위자를 배출해 왔는데, 2002년부터는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이 주간과정으로 개설되었다. 특히 박사과정의 설치에 국내 최초가 된다.

학위 과정 외에도 비학위 과정으로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1991년

서강대를 시작으로 대학 부설 기관이나 민간 기관에서 개설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공교육이 교사 양성을 하지 않으므로 교육에 적절한 교사를 자체 내에서 양성, 임용하려는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원 자격은 대부분 전공 제한 없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한다.<sup>8)</sup>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단기 과정으로 교육 기간, 방법, 교육과정 등에서 각 기관마다 편차가 심하다. 정해진 기준 없이 여러 과정이 난립되는 상황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전적 도약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또한 대부분 한국어 교육학 영역에 집중적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학위 과정의 교육이 대부분 단기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위 과정과 같은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실천적 교육 능력 습득에 목표를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국어학 기초 이론, 언어교육 기초 이론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수법 교육은 기본이 허술한 기술 중심 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학부나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학교별로 과목명이나 개설 과목의 종류가 서로 다르지만 비교적 공통적인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3>을 참고하면 대체로 국어학, 언어학, 한국어 교육학, 한국문화론, 교육실습 관련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서강대는 인문, 사회 계열로 전공 계열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구 YMCA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은 국제 교류의 활성화라는 목표로 개설되어 다른 양성과정과 비교해 수강자의 학력 제한이 없고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강의이다. 이런 전공 제한이 없음을 장단점이 있다. 다양한 배경의 전공자를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아무 전공자나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오해를 줄 수 있어 학부 전공 무용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표3〉 대학원 학위 과정 한국어 교육 전공 개설과목

학교	과목수	과목명			
경희대	21	언어대조연구1(서양어권) 언어대조연구2(동양어권) 언어습득 연구 용용언어학 이중언어 연구 한국어 교육경영론 한국어 교육과정연구	한국어 교육과한국문화 한국어 교육과한국문화 한국어 교육교재론 한국어 교육방법론 한국어 교육실습 한국어능력평가법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음운교육론 한국어의미교육론 한국어지도론 I (회화, 청취) 한국어지도론 II (작문, 독해)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표현법연구 한국어한자교육론	
고려대	19	외국어교수법 이중언어교육과심리언어학 한국문학교육론 한국문학의이해 한국문화의이해 한국어 교육과정연구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평가론 한국어교재연구및교수법 한국어 교육실습 한국어말하기/듣기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사	한국어쓰기교육론 한국어음운교육론 한국어의미교육론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특수과제연구 한국어학개론	
연세대	35	교육재료개발연구 대조분석연습 대조언어학이론연구 문화간언어소통문제 사회언어학연구 시사한국어 교육론 심리언어학연구 언어교육이론연구 언어민족지학연구	음성학연구 이중언어교육론 제2언어학습이론 텍스트의미론연구 학교문법론 한국문화사 한국어교수방법론 한국어 교육1 한국어 교육2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세미나 한국어 교육특강1 한국어 교육특강2 한국어 교육특강3 한국어교재연구 한국어문법론 한국어발음지도법 한국어번역론연구	한국어사전문제 한국어음운론 한국어화법연구 한국전통문학강독 한국현대문학강독 한문강독 한자교육론연구 화용론연구
이화여대	19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학습지도연구 한국어 교육의교재연구 한국어형태론과지도방법 한국어음소론 한국어의미론의지도방법 한국어통사론의지도방법	문학교육론 언어학개론 외국어교수법 한국어 교육과정연구 한국어평가 한국문와의이해와지도	한국어지도실습 한국사회와한국어 언어비교분석 한국어 교육연구사 한국문자와표기법지도 한국어 교육특수연구	
한국외대	34	대조언어학이론연구 문화간언어소통문제 한국어통사론 시사한국어 교육론 심리언어학연구 언어교육이론연구 음성학연구 이중언어교육론 제2언어학습이론연구 한국어사	텍스트의미론연구 학교문법론 사회언어학연구 한국어문학사 한국서교육론 한국산문교육론 한국어교수방법론 한국어 교육1 한국어 교육2	한국어 교육세미나 한국어 교육재료개발연구 한국고전문학강독 한국어교재연구 한국어발음지도법 한국어번역론연구 해외에서의한국어교수방법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작문지도연구 한국어형태론 한국어화법연구 한국현대문학강독 한자교육론연구 교수방법론 화용론연구

국어학 영역은 대체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국어학의 지식으로 음운론, 형태론, 문법론, 어휘론, 의미론 등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학에서 연구되는 학문 영역으로는 음운론(음성학), 문법론(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어휘론), 계통론, 문자론, 방언론, 국어사 등이 있다.<sup>9)</sup> 국어학이나 이들 이론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하위 학문 영역이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에 다 포함되어야 하는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언어학 영역은 일반언어학보다는 응용언어학 분야의 과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제2언어 교수법, 언어습득론, 오류분석론 등이 그것으로 언어교육의 기초이론 습득이 한국어 교육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학 영역에는 가장 많은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개론적 이해, 표현과 이해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관련된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평가론, 교재론 등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문화 영역에는 한국 현대, 고전문학, 한국문화와 한국사회 이해 등에 관한 과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영역의 경우는 개설된 교과목이 문학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특히 최근 언어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과 함께 문화교육도 강조되고 있는데 자기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올바른 문화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문화교육의 이론, 타문화에 대한 적응과 이해에 관련된 과목도 다양하게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실습 영역을 보면 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과정도 있고, 실습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어 교육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정도 있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활동의 목적지나 출발점이

9) 최길시(1998: 28)에서는 한국어 지도자들이 구비해야 할 지식으로 한국어학과 관련해 해서 국어사, 음운론, 어휘론, 문법론, 방언론,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훈민정음, 한자 등을 들고 있다. 박영순(2001: 12)에서는 한국어 교육학에 문법 교육을 하위 영역으로 놓고 그 안에 음운론 교육, 형태론 교육, 통사론 교육, 의미론, 교육, 한국어사 교육 등을 두고 있다.

수업 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실습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습득한 각종 지식을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응용하고 활용하면서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연습해 보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수한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실습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운영도 충실해져야 할 것이다.

### 3. 한국어 교육의 과제

#### 1) 학습자 변인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 구축

최근 들어 한국어 수요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위, 비학위 과정의 한국어 교사 양성은 거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학습자 집단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고려가 거의 없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입학생 수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 및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삼거나,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전문적 관심이 증대된 것, 한국의 문화와 한국학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된 것과 관련이 있다. 대학의 외국인 입학생 수의 증가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국제적 경쟁력 확보 등,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외국인 입학생의 양적 증가를 반갑게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입학생들의 유치를 위해 대학에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짧은 시간에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켜 대학의 본 교과과정에 합류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대학에서의 수학을 목

표로 하는 학문적 목적(academic purpose)을 가진 학습자에게는 일반적인 목적(general purpose)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와는 다른 교육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 방안 모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상황이나 의사소통 목적에 대한 고려이다. 학습자의 언어 학습의 목적과 그들이 놓이게 될 의사소통 상황은 학습의 내용과 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은 단순히 일반적인 언어 능력 제고에 있지 않다. 이들은 대학 수학을 목표로 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며, 결국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하게 되는 상황은 교과목을 수강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서 그룹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등의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학습 내용과 과제는 단순히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달리,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

- ① 학문적 목적에 맞는 한국어 숙달도의 제고
- ② 학문적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대학 수학 능력의 제고

대부분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로 진행되는 몇 개 과목만을 수강하다가 졸업에 요구되는 학점 부족과 한국 유학 생활에의 부적응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 졸업율이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내용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성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대학 부설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수학 내용은 너무나 일

반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학 수학 능력을 위한 교육과 동떨어져 있어 이들이 소정의 언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대학 강좌 수강에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어려움은 그들을 중도 포기하게 만든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이나 특별 교과목의 설치, 운영이 안 되었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원인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들 외국인 입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한국어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특별반의 형태로나 한국인 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교양 국어 관련 교과목이 전부이다. 이는 일반교양 교과로, 학생수가 과다하여 언어교육으로서의 실효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학 전 겨울 방학을 이용해 자비 단기 훈련을 받을 것을 입학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대학도 있으며, 입학 제한을 두어서 언어, 문화 충격을 다소라도 해소한 후 입학을 허가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입학 조건을 세워 입학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한국어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지도나 선호도를 고려할 때, 더불어 대학의 국제간 교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입학을 허가한 후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면 이들 외국인 입학생들의 졸업은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의 수강료 부담 문제,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해당 기관 설치와 운영 등의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

한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특수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교수법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며 특수목적을 위한 한국어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거의 없다. 특히 비즈니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특수 한국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개발 등은 앞으로 한국어가 국제어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경제 규모는 작지 않으며, 이에 따른 한국과 다른 나라간의 국제 교류 또한 매우 활발한 추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비즈니스용 한국어 과정이 존재하는 대학은 극히 드물다. 비즈니스용 한국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특수 목적을 위한 한국어 과정에는 일반 대학 과정의 한국어와는 다른 특수한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반 외국어 과정에서의와는 다른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0)</sup> 이러한 학습자들의 요구가 커리큘럼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종류의 교육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도 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야 하는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내용 면에서 볼 때도 학습자 변인에 따른 다양한 교육 과정안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능력 면에서 초급, 중급, 고급을 위한 교육과정이 달라야 할 것이고, 학습 목표(학문, 기업체, 외교관, 기타)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서도 당연히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 3개월, 6개월, 1년, 2년, 대학, 대학원 전과정 등 목표로 하는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서도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함은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학습자의 출신 지역이나 모국어도 고려되면 좋겠고, 순수 외국인인지, 교포인지도 고려할 수 있는 한 고려되어도 좋을 듯 하다. 그러므로 교육 과정 설계자는 학습자 집단을 가상해 놓고 최고의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한 과목 한 과목에 대한 실라버스도 제시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 2) 전문 교사 확보 및 재교육

한국어 교육이 학문으로서 발전해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

10) 예를 들어 비즈니스용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은 한글 문서 작성, 문서상자 주 등장하는 한자 학습, 무역 용어, 사업 목적용 상거래 서신 작성 등, 사업상 필요한 용어 및 문서 작성 요령 등을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가 바로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에 있지 않나 한다. 이미 국내 주요 대학들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이 속속 개설되고 있고 전문적인 교사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히 한국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있거나 외국어 교육을 전공했다고 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교수법에 관한 강의를 한 두 과목 들었다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의 언어 교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학문의 한 분야로서 한국어 교육을 연구하는데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몇 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학위를 받기 위한 학위 프로그램이나에 따라 커리큘럼의 내용과 깊이가 달라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 것이다.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대학 등에도 한국어 교육을 전공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 많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sup>11)</sup>

외국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와 한국 강좌를 담당하는 교강사 중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비록 한국어의 원어민이고,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고 해도,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한국어 대학원 과정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의 현장 경험을 일정 시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원봉사 방식 등의 방법으로 언어교육원에서 일정시간 실습을 하는 것이다. 박사 과정생은 자매대학 교류 등을 통해 1년 정도의 해외 봉사, 연구를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변과학기술대의 코리언하우스<sup>12)</sup> 파견 봉사 활동처럼 하절기 봉사 가능 지역을

11)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아주 소수의 대학(University of Hawaii, UCL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등)에서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거나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 전임 교수들은 한국 언어학이나 순수 언어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그나마 다수의 대학에서는 한 사람의 전임 교수가 언어, 문화, 문학 등 한국학 전반에 관한 모든 과목을 담당하거나, 심지어는 전임 교수 없이 언어 강의 담당의 전임 강사나 조교 등으로만 한국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에 학과 차원에서 모색하여 현지 기관들과 협조하여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교육기관들이 여러 사정으로 실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언어교육 기관의 교강사에 대한 보조요원으로서 실습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 전공 졸업자에 대하여 대학원 국어교육전공자에 준하는 교사 자격증 부여 방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한국어 교육 자체가 한국어 교사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동시에 한국어 교사의 양성과 인증에 대한 제도적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 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나 교육대학 교사 양성을 위해 교원자격법과 관련 전공 개설 법률이 보장되어 있듯이 한국어 교육 분야가 학문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법률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이 제도권 교육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근본 이유도 한국어 교육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한국어 교사 양성의 비체제성도 여기에 기인한다.

한국어 교사의 양성, 인증, 임용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전공의 학위, 비학위 과정을 위해 공인 표준 교육과정<sup>12)</sup>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교사 인증 제도도 정착될 수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 인정 '한국어 세계화 재단'에서 2002년 11월 9일 처음으로 한국어 교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300여 명이 응시한 바 있는데, 교육과정의 정착도 미비한 상황에서 시험이 먼저 치러진 형국이 되었다.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연수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어교사에 대한 연수 제도 역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교사 자체 연수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 유지시키기 위한 보수교육과 재교육 과정은 교사들

12) 연변 과학기술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은 한양대 학부생들이 매년 여름학기에 자원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국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어 도우미로 활동한다. 필자도 2002년에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한 적이 있다.

이 교수, 학습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연구에 접하도록 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교사 연수의 방법은 종래의 전통적인 강의 방식 이외에도 현재 초·중·등 교원 연수에 도입된 원격 영상 강의를 통한 원격 연수,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연수 등이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sup>13)</sup>

### 3) 학문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다양해지는 외국인 학습자에 적합한 커리큘럼과 전문교사의 제도적 확충과 동시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 다른 언어들의 교육 이론을 이해하고, 참고는 해야겠지만, 한국어에 적합한, 한국어 교수법과 교육 현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장 연구의 강화도 한국어 교육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현재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우선 인식해야겠다. 국력의 신장, 남북한과 해외 거주자를 합친 한국어 인구수, 남북통일을 비롯한 지정학적 문제, 문자의 과학성과 체계성으로 인한 기계화의 용이성,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OECD 회원국 진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4강국과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및 이들 국가들에 거주하는 몇 백만 명의 동포 등으로 인한 국제적 관심 등의 요인으로 이제 한국어는 수천 개의 언어 중 세계 10대 언어권 내외에 진입해 있는 주요 언어가 되었다.<sup>14)</sup> 이에 부응하여 세계 여러 국가의 대학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관련 전공이 개설되고 있

13) 경희대 국제교육원은 인터넷 한국어 교사학교를 통해 재외 한국어 교사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4)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어 중에서 20여개의 언어가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어는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약 7,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서는 13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서는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 한국어 교육 영역에 있어서 문법과 언어기능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문학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학생들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문학교육에 대한 이론적 학습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외국인 학생들의 자국어에서의 학부 전공이나 학부 과정에서의 수강 과목의 실태 상 대학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 강의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국어교육과의 학부과정 과목을 선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필독 작품을 선정하여 반드시 읽도록 하는 보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유용한 고전과 현대의 작품을 선정하고 각 작품에 적절한 연구 논문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문법(표준문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모든 전공자들이 읽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언어로서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연구를 축적하여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의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만 비로소 시대와 학습자에게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 제정, 체계적인 교과서 제작, 교수법 개발, 교사 양성, 표준 평가 도구 제작, 전자 사전과 한국어 학습의 컴퓨터 프로그램화 등과 같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준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한국어 교육이 이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한국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전공자 개개인이 어떤 특수한 주제를 연구하든 모든 전공자들은 어학, 문학, 교과학 차원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지식 생산을 위한 능력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어 교육이 다양한 국가나 문화권과 한국문화의 교류를 목표로 한다는 거시적인 안목을 항상 견지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한국문화교육을 지향하는 한국어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역사나 지역 사정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문화교육이 아니라

한국어로 표현되고 매개되는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정서, 심미적 의식 등에 대한 통찰과 체득이 이루어지는 문화교육 또는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과목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과목에 있어서도 국어교육 전공자들과 같이 들을 수 있는 공통 교과목과 한국어 교육 전공 교과목으로 세분하여 공통교과목에선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 공통 운영을 통해 학문적 공동 관심사를 모색할 수 있고 나아가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도 있겠다.

#### 4. 나오며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당면 문제들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조망해 보았다.

먼저 다양한 교육목적에 지닌 외국인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그동안은 학습 수요자가 많지 않아 학문적 목적을 가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은 연구되거나 적용된 바가 없으나 국가, 대학 차원의 세계화 추진의 영향으로 입학 수요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완만한 증가 곡선을 이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즉, 학문적 목적을 가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앞으로 학부 대학원에서의 전공 과정도 더욱 증설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 또는 연구과정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교과과정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 전공이 활성화하려면 한국어 교사 인증 체계를 국가적으로 갖추고 이 분야의 교육자들에게 신분의 안정을 제공하는 것도 긴요한 일이다. 교육부 등의 유관 정책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장기적 한국어 교육 발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

이다.

국어학 등의 인접 학문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도 한국어가 우수한 언어이고 한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언어가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되고 학습될 수 있는 지에도 시선을 넓히고 관심을 기울여 연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올바르게 인식되게 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정부나 관련 기관들에서 인지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국어를 보존하고 세계적으로 보급시키려는 노력이 없고서는 한국어가 세계 주요 언어로 뿌리를 내리고 한국어 교육이 학문으로 성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은주(2001).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위상정립과 학문으로의 미래 조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 연세대 한국어학당.
- 남기심, 이상익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대출판부.
- 남기심(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회고와 전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 연세대 한국어학당.
- 민현신 외(2002). 「한국어 교육 전공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언어문화 30. 서울대 국어교육과.
- 박영순(1997).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 (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도서출판 율인.  
— (2002).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오고시나오키(2000). 「한국어 교육의 변화 방향」. 한국어 교육 11.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이해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 정정식(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고찰」. 경희대 석사.
- 조항록(2000).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육 11.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최길식(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